## Cylinders

이민수

Minsoo Lee



양구 백자 연구소 실내



나의 작업은 여러 색의 겹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형태를 만들고, 그 겹침을 보여주기 위해 기물을 잘라내는 것이다.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다양한 크기와 색상을 가진 시리즈 작품을 만들어 왔다.

이 작업의 계기는 다중캐스팅에 흥미를 느끼면서였다.

다중 캐스팅이란 다른 색의 흙물을 여러 겹으로 구성하는 슬립 캐스팅의 일종인데, 여기에 내가 오래 수련해 온 물레 성형 기법을 혼합하여 나만의 방법으로 발전시켰다.

작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만들어진다.

먼저 실린더(원통) 형태를 제작할 수 있는 석고 틀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회전시킨다. 흙물을 부으며 틀 안쪽 벽 전면에 발라주고, 석고가 수분을 어느 정도 흡수하면 다른 색 흙물을 붓는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여러 겹의 흙이 충충이 쌓인 형태가 만들어진다. 기물이 적당히 마르면 틀에서 분리하고, 칼을 사용하여 기물 일부를 기하학적 형태로 잘라낸다.

이렇게 잘라내는 이유는 단면을 드러내어 기벽이 여러 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시각적 효과와 기술상의 이유로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다.

단면을 강조하기 위해 기물의 형태는 단순한 실린더를 벗어나지 않고, 자르는 모양도 수직과 수평으로 제한하였다. 오랫동안 흰색과 파란색으로만 작업하였는데, 높은 온도의 소성에도 발색이 안정적이고, 두 색이 분명히 대비되면서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었다. 또한, 색 선택의 가짓수가 많아지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도 있었다. 기술적으로 숙달이 되었다고 생각이 된 후에야 다른 색이나 다른 종류의 흙을 사용하게 되었다.

제작과정 하나하나 내 능력치를 끌어올려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왔다. 흙물을 잘 다루어서 균일한 층을 만들도록 하고, 단정한 형태가 되도록 마무리하는 것까지 집중해서 작업했다. 단순한 형태, 몇 가지로 제한된 색의 반복이지만 단순하지 않은 작업을 하고 싶었다. 앞으로 형태를 과감하게 변형하고, 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전시가 지금까지 해온 작업의마무리이자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2016년 이민수

My work involves creating a form with multiple layers of color and cutting the object to show their stratum. I have been making the series with various size and colors by repeating the same process.

The beginning of the series stems from interest in multicasting. Multicasting is a kind of slip- casting, which uses distinct colored slips as numerous layers, and I have evolved it into my own unique method by combining the wheel-throwing method, the method I've been training for a very long time.

My works are made in the following the order.

First, I place gypsum mold that can make a cylindrical shape on a wheel and turn it. I pour the slip into the mold and apply it to the wall interior. Once the gypsum absorbs some of the moisture, I pour in different colored slip. Repeating these process creates a form of multiple layers of slip.

Once the object is dry, I remove it from the cast and geometrically cut a piece of the object with a knife.

The reason for this is to expose the cross section of multi-layered ceramic wall.

There were some limits due to visual effect and technical reasons.

In order to emphasize the cross section, I have not diverged too much from the shape of simple cylinder, and therefore I have also limited the shape of cut pieces to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I have only worked with colors white and blue for long time, because the colors are stable at high temperature firing, and the two colors harmonize and contrast well simultaneously. Additionally, my concentration declines if there are too many color choices. I started to use different colors and kinds of slip after I thought I was technically proficient.

I have done my best to improve my work by raising my full ability in each minute processed. I trained myself rigorously in working with slip to be able to make a uniform layer and finish it into a neat form. I wanted to create simple forms with repetition of a limited number of colors, but via not necessarily simple process. I plan to change the form and my color palette dramatically in the future. I hope this exhibition will be the turning point of wrapping up the past series and beginning a new series of work.

2016 Minsoo Lee





2010년 봄 LVS 갤러리에서는 서울대학교 도예과 황갑순 교수와 제자들의 백자 작품을 묶어 '백중백'이라는 타이틀로 전시하였다. 이 후로도 백중백 전시는 여러번 있었고, 첫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을 '백중백 1세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민수 작가도 그 중 한명으로 현대공예에서 하나의 지표가 될만한 작가이다. (더 깊게 논의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잠시 짚고 가자면, 여기서 말하는 '현대 공예'는 공예가 수작업으로 만든 기능적 사물이라는 전통적 혹은 보편적 관념을 떠나 많은 분야와 장르를 아우르고 확장하는 비교적 최근 일어난 공예의 흐름이다.)이민수를 포함한 이 세대의 작가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이를 이민수의 작품으로 설명해 보겠다:

1) 두 가지 이상의 전통 도예 기법을 결합하여, 원하는 미감과 형태를 성취할 수 있는 고유 기법으로 발전시킨다.

이민수는 두 가지의 기법: 슬립 캐스팅과 물레 성형을 결합하여 집중적인 수련과 연구를 통해 작가 고유의 기법을 만들었다. (이민수. 2012; 이장 물레 성형기법 개발 연구) 이 기법은 작가가 '완벽한' 기물을 만들기 위해 수년간 재료와 도구를 다루며 얻어낸 것이다. 이 '완벽한' 기물은 작가의 손기술, 재료의 안정성, 그리고 흠 하나 없는 오브제의 자태가 완전히 결합한 것을 말한다.

## 2) 모던 디자인의 역사와 언어를 참조하였다.

이민수의 실린더 단면에 드러난 선들은 사실 위의 '이장 물레 성형기법'으로 겹쳐진 실린더들의 모서리이다. 작가는 매우 얇은 실린더를 만들어 그것으로 선을 만들어 내었고, 축적된 레이어들이 삼차원의 구조를 이루었다. 형태는 단순할지라도, 작품의 다양한 단면이 영리하게 여러 차원의 공간을 다룬다. 더 나아가 작가는 추상 기하학적 구조도 손으로 만들어내는 최선의 기교를 보인다. 자연에 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직선은 인간 논리의 제전이자, 현대 예술과 디자인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선명한 단색 소지를 백자 소지와 번갈아 병치한 점은 기물의 다차원적인 면을 매력적으로 언급하는 동시에 청화백자, 철화백자와 같은 한국 전통 백자의 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3) 기능과 디자인, 작업과정을 일치시켰다.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백중백 1세대' 중 많은 작가들은 공예의 기능성을 중요시한다. 사물의 기능성은 주로형태에서 비롯되고, 그 중 물레 성형은 기능적인 사물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민수 또한 이 기본 기법 (물레 성형)에 충실하므로,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기능 (담는 것)과 디자인 (실린더)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합성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더구나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작가의 신체성이 도예를 시작한 시점부터 시간성과 결부되어 각각의 사물에 녹아 있다. 그러므로 '완벽한' 기물은 작가가 엄격한한 일과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쏟아부어야 완성된다. 기능, 디자인, 그리고 신체성이 하나라도 결핍되면 '완벽한' 기물을 이룰 수 없다.

'공예'가 '현대 공예'로 넘어가는 시점은 재료, 도구, 기술 등의 기본 요소들을 새로운 맥락 속 병합시키고 비틀어서 미래까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안정된 확장'에서 나타난다. 이민수의 차분하고 단조롭지만 강렬한 선과 면들은 과거 조상들이 무언가를 담기 위해 고안한 재료와 기술에 현대의 조형과 서술을 혼합한다. 그리고 반복적인 형태와 색감으로 작가 본인의 일상을 고스란히 내장하여 끝없이 이어지는 어떤 무한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민수는 차분한 무게감, 신선함, 그리고 반복성에서 오는 기대감이 공존하는 '완벽한' 기물을 만들어냈다.

2016년 오다인

As a member of the first-generation contemporary white porcelain artists: 'White in White' taught by Professor Kapsun Hwa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Min-soo Lee creates ceramic works that marks the shift of 'craft' to 'Contemporary craft.' This generation of artists can be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attributes:

1) combination of two or more traditional ceramic techniques, which the artist then evolves into his or her unique technique to suit the artist's own need of aesthetics and form, 2) manual references to the history and language of 'modern design' 3) and unification of function, design and process. Although this topic can be discussed in much depth, I would like to briefly clarify that 'Contemporary craft' here defines a relatively recent movement of craft, which crosses in disciplines and genre and expands from the traditional or popular notion of 'craft': handmade functional ob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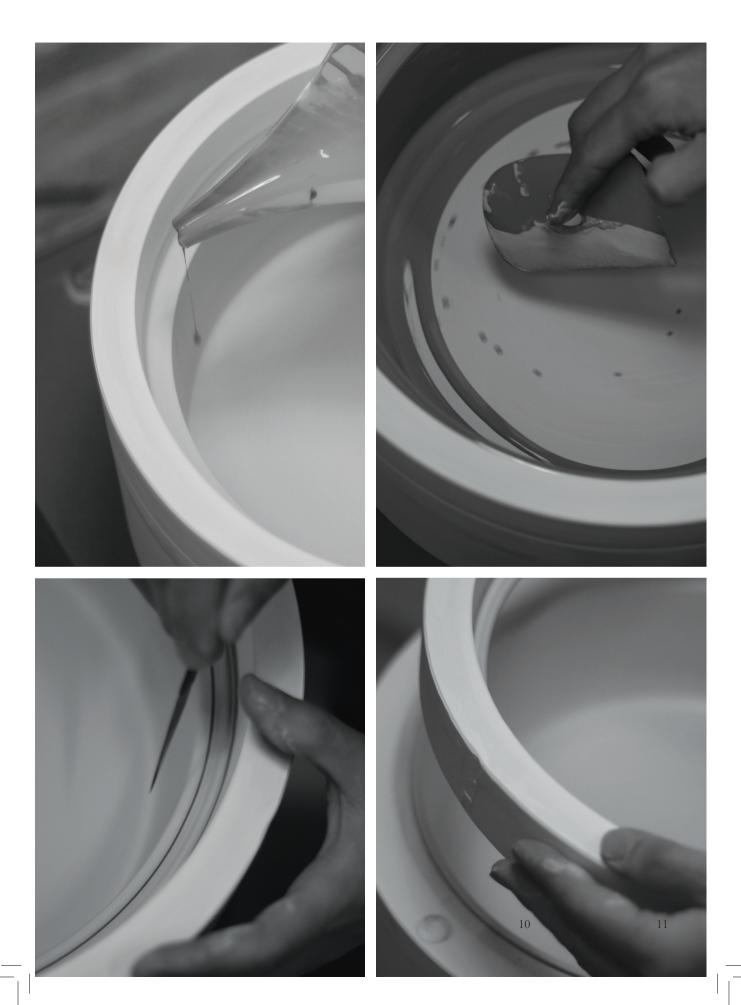
- 1) Min-soo Lee combines two techniques: slip-casting and wheel-throwing and has created a unique process via intensive training and research. (Min-soo Lee. 2012; Slip-casting & Wheel-throwing Technique Development Research) The technique is derived from years of experience with the material and tools with goals to achieve the 'perfect' object. The 'perfect' object is a complete synthesis of the artist's hand skills, stability of material, and flawless stance of the object.
- 2) All the lines revealed in the finely-cut cross sections of Lee's cylinders are actually edges of whole containers layered together by the technique mentioned above. In some respects, Min-soo Lee has flattened the layers of cylinders so thin that they became lines, and the accumulation of the layers has also built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Although the form may be minimal, the various facets of his works cleverly manipulate different levels of dimensions. Here Lee displays extreme craftsmanship where abstract geometry can be hand-built. Straight lines do not exist in nature. They are celebrations of human logic and an important factor in modern art and design. The solid, bright colored layers consecutively alternating with white porcelain layers engagingly touch upon the multi-dimensionality of the object, as well as reference the colors of the Korean traditional white porcelain such as blue white porcelain, iron red white porcelain, etc.
- 3) Not all, but many of the first generation white porcelain artists strictly insist on the function of craft. The functionality of an object is usually directed by its form, and wheel-throwing is one of the most basic processes in creating a functional ware. Min-soo Lee also chooses to concentrate on the basic process (wheel-throwing), which naturally leads to the basic function (to contain) and design (cylinder) of a ceramic object, the 'perfect' synthesis. Furthermore, since the artist is involved in all aspects of the creation process, the artist's physicality along with temporality from the moment he has begun his training in ceramics is embedded in each object. The 'perfect' object then also requires the artist to exert oneself via rigid daily routines. One factor excluded will not complete a 'perfect' object.

The moment 'craft' becomes 'Contemporary craft' is when the work shows 'stable expansion'; the work mixes and bends the basic components of craft such as material, tools, and technique to reveal potential of the next.

Calm, simple yet robust lines and surfaces in Min-soo Lee's work infuse modern form and narrative into the material and techniques originally contrived to utilize by the ancestors. Moreover, the artist's daily routine embedded in the repetitive form and colors breaks through an endless continuity. Lee has created a 'perfect' object with serene weight, novelty, and anticipation derived from repetition all co-existent within the cylinder's innate rip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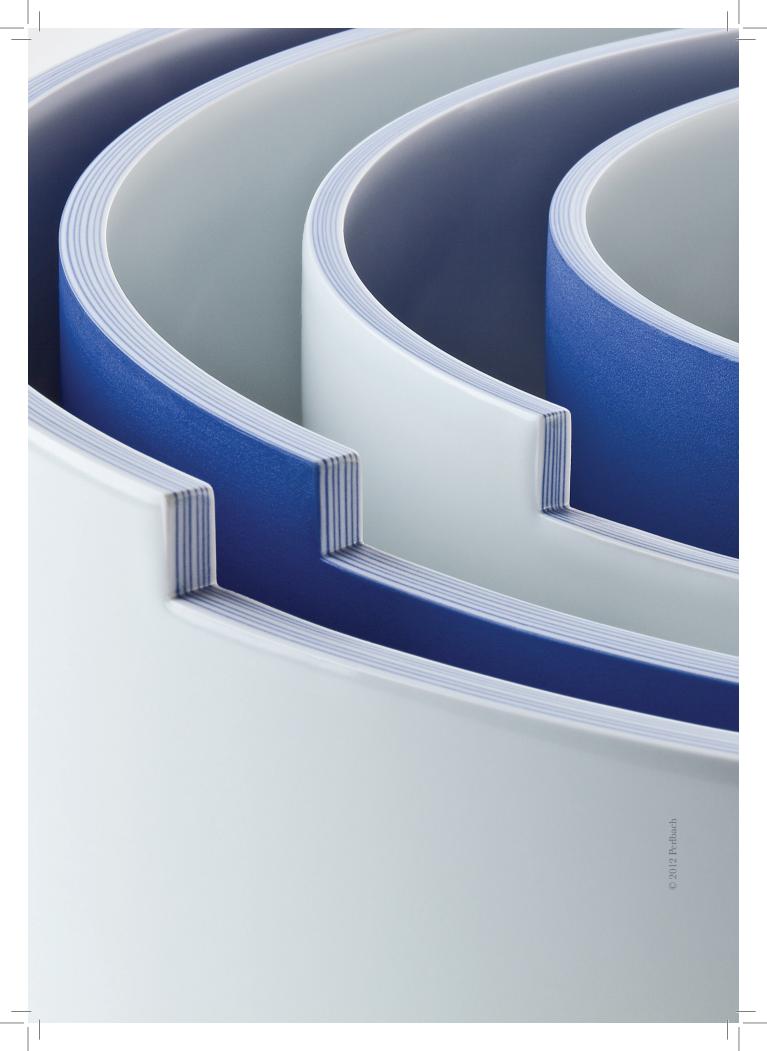
2016 Dain 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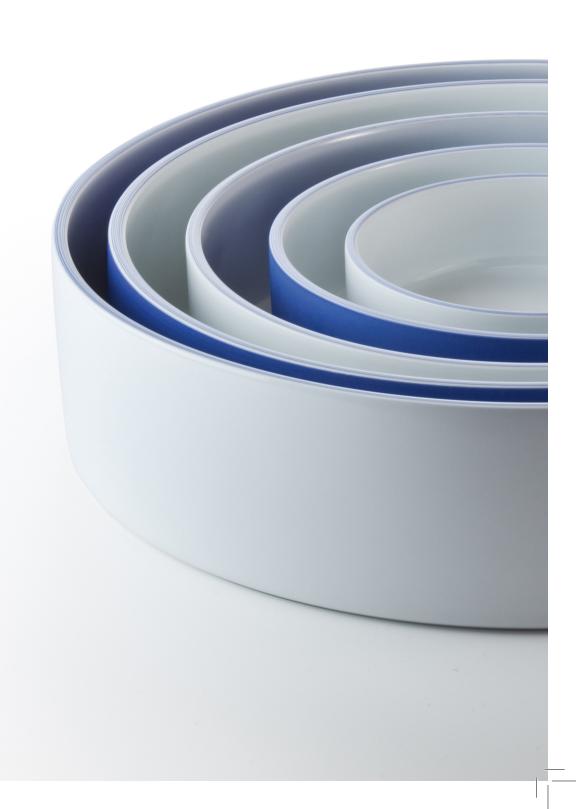
Porcelain, coloured porcelain, slipcasting + wheelthrowing, modified, glazed, 1280  $^{\circ}$ C reduction firing, polishing.



백자, 안료, 이장물레성형 후 변형, 유약, 1280°C 환원소성 후 연마.

2016

ø 10.5cm H.10.5cm ø 17cm H.7.5cm ø 10.5cm H.17cm ø 14cm H.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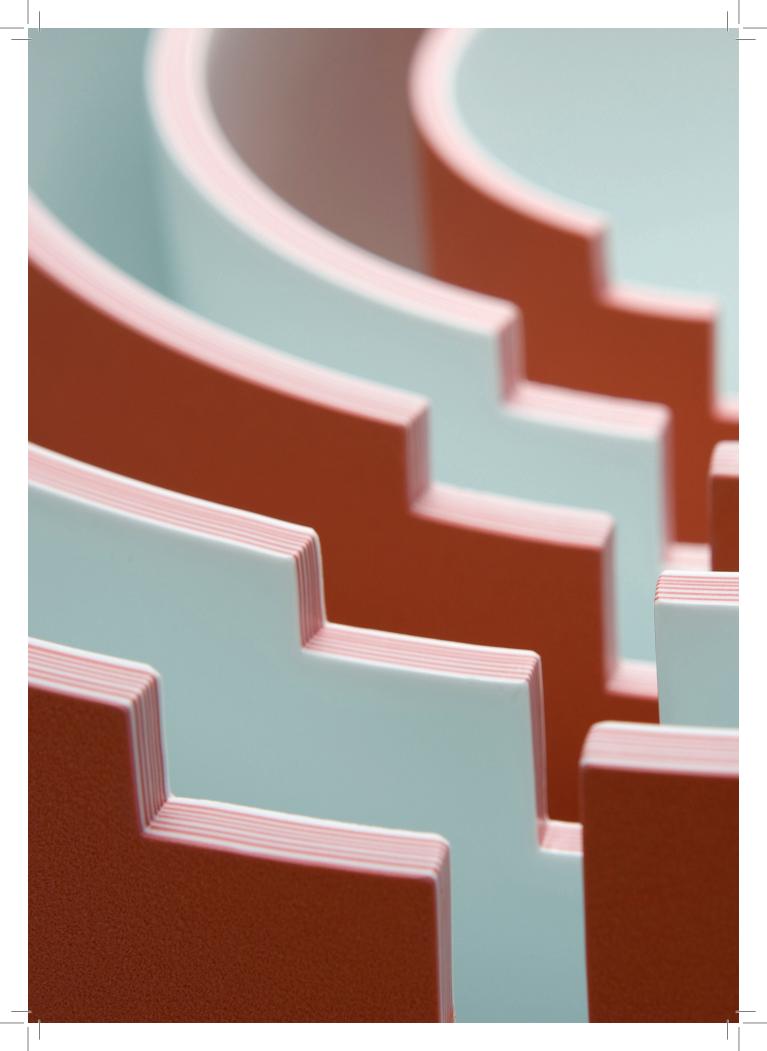
© 2012 Perlb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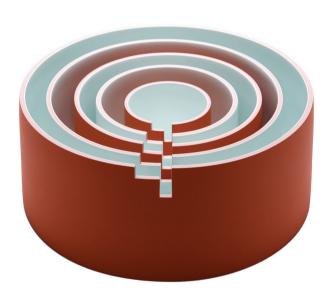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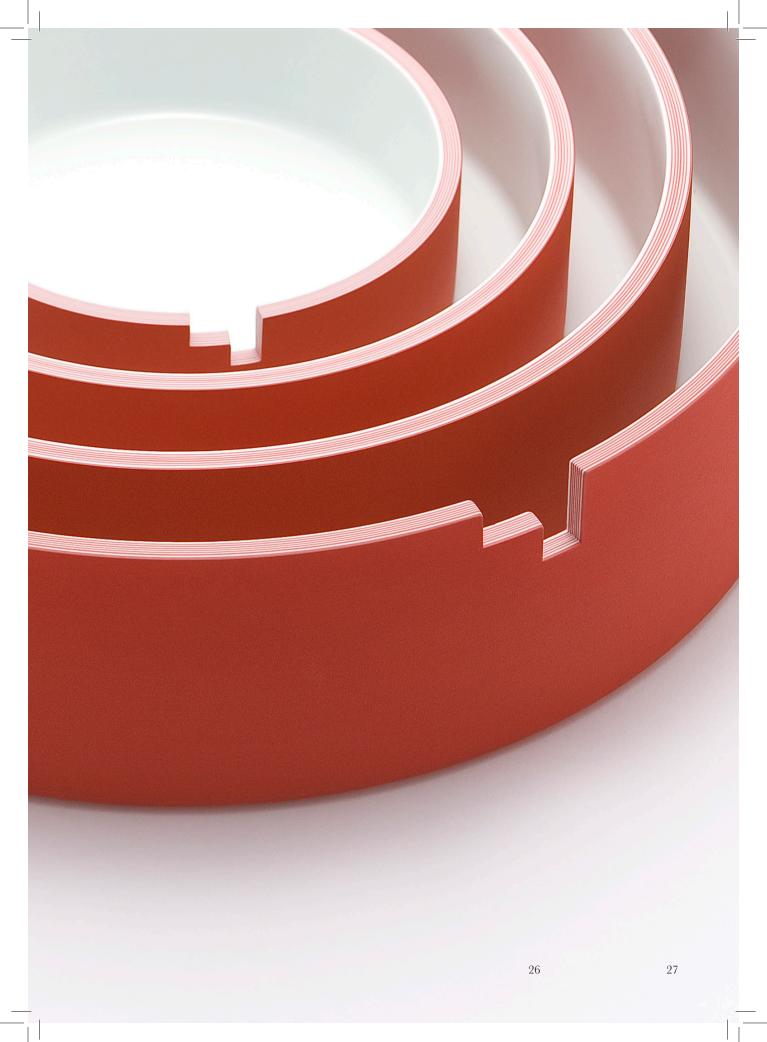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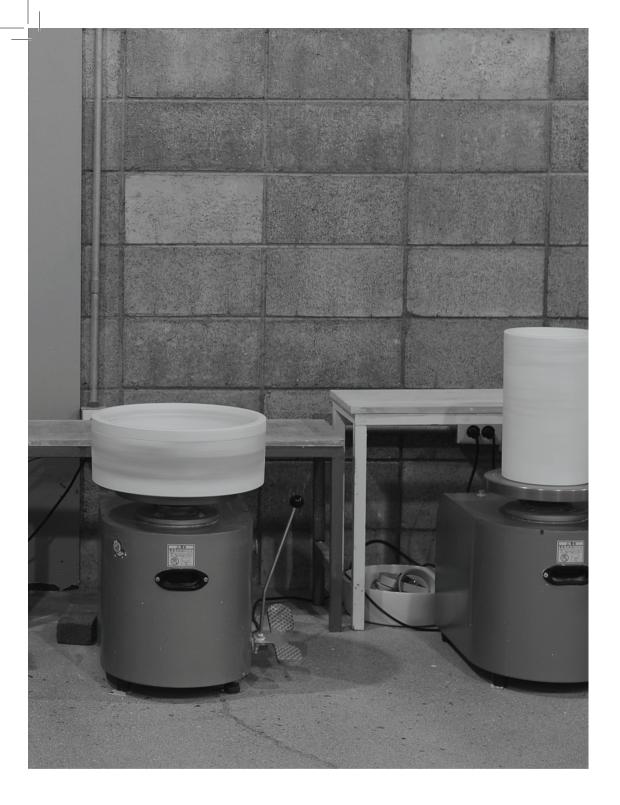
















## 17.5cm H.10.5cm #10.5cm #17.5cm #17.5cm #17.5cm #17.5cm #10.5cm #10.5cm #10.5cm #17.5cm #17.5cm #17.5cm #17.5cm #17.5cm #17.3cm #17.3cm #17.3cm #17.5cm #14.5cm #10.5cm #10.5cm #10.5cm #10.5cm #10.5cm #10.5cm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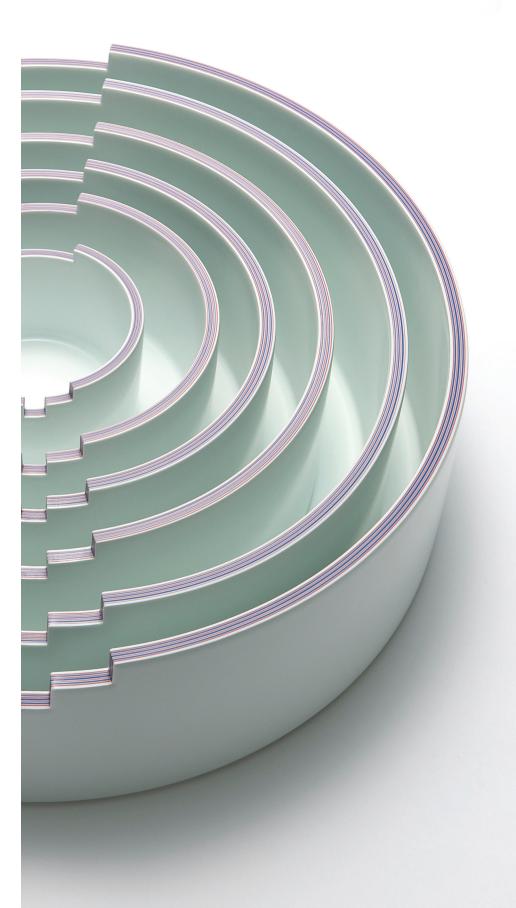


Porcelain, coloured porcelain, slipcasting + wheelthrowing, modified, glazed, 1280% reduction firing, polishing.

백자, 안료, 이장물레성형 후 변형, 유약, 1280℃ 환원소성 후 연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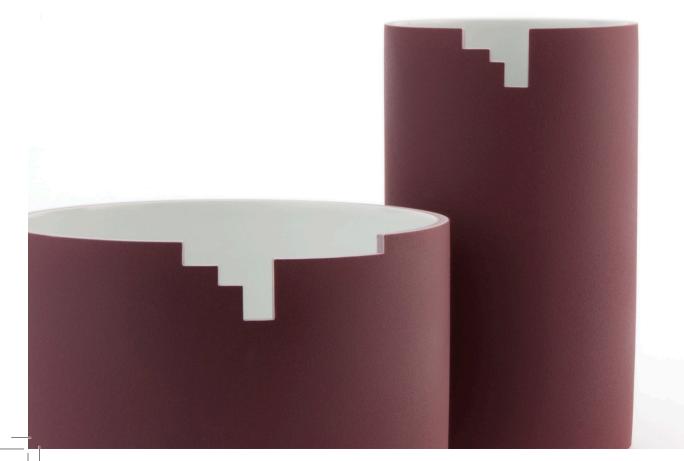
2016

ø 41.5cm H.16cm









Porcelain, coloured porcelain, slipcasting + wheelthrowing, modified, glazed, 1280  $^{\circ}$ C reduction firing, polishing.

백자, 안료, 이장물레성형 후 변형, 유약, 1280° 환원소성 후 연마.

2016



ø17.7cm H.11cm ø11cm H.18cm

Porcelain, coloured porcelain, slipcasting + wheelthrowing, modified, glazed, 1280  $^{\circ}$  reduction firing, polishing.

백자, 안료, 이장물레성형 후 변형, 유약, 1280℃ 환원소성 후 연마.

2016

ø41.5cm H.12cm





ø 14cm H.20.5cm ø 14cm H.23cm ø 10.5cm H.18cm ø 10.5cm H.11.5cm ø 14cm H.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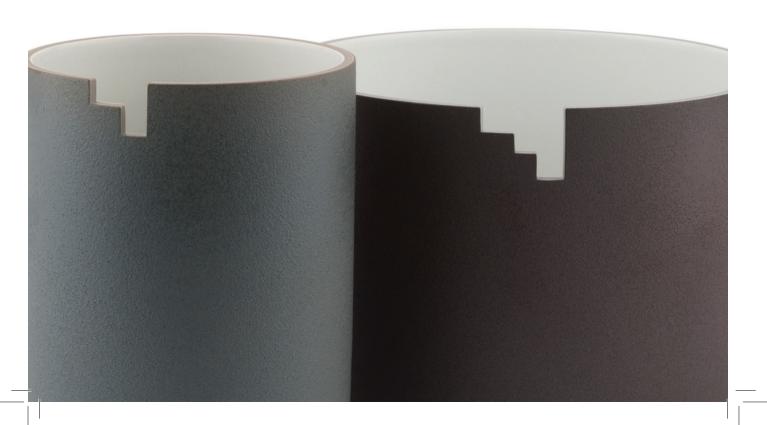
ø 11cm H.12cm ø 23cm H.11.5cm ø 11cm H.18cm ø 11cm H.23cm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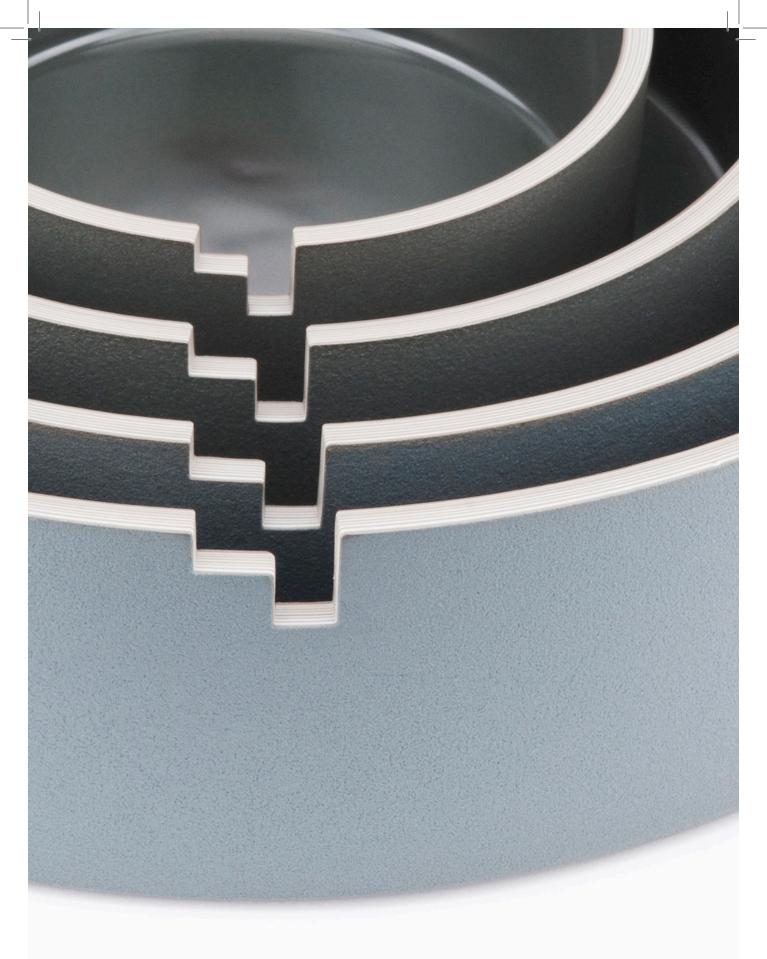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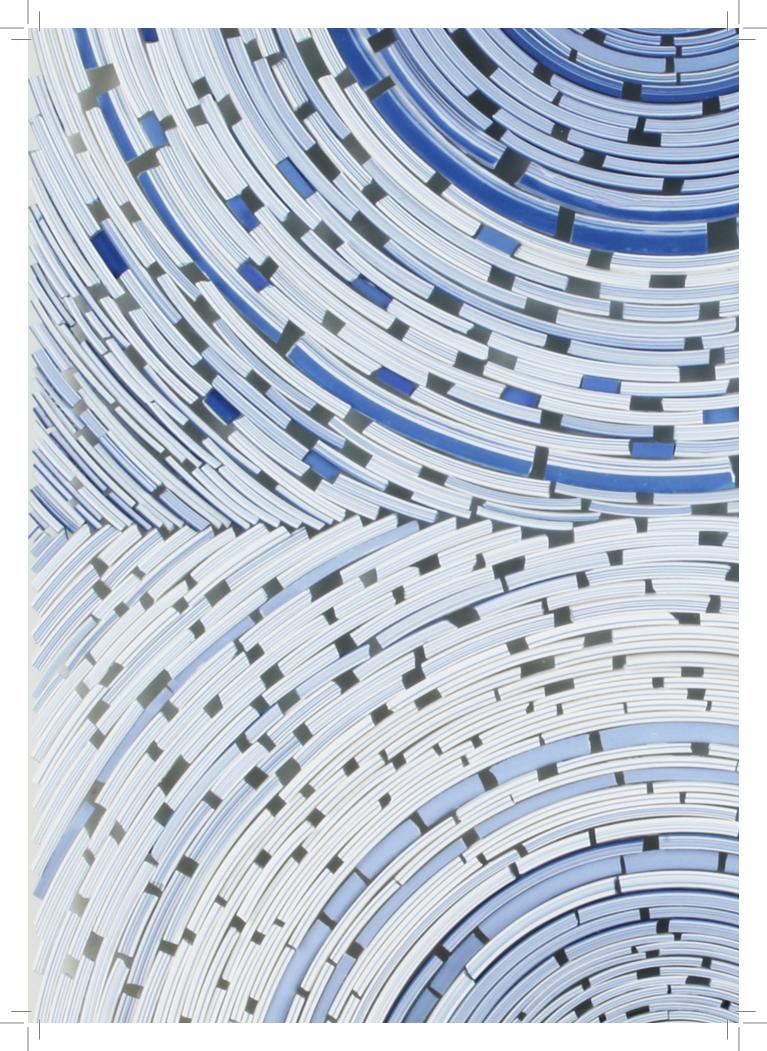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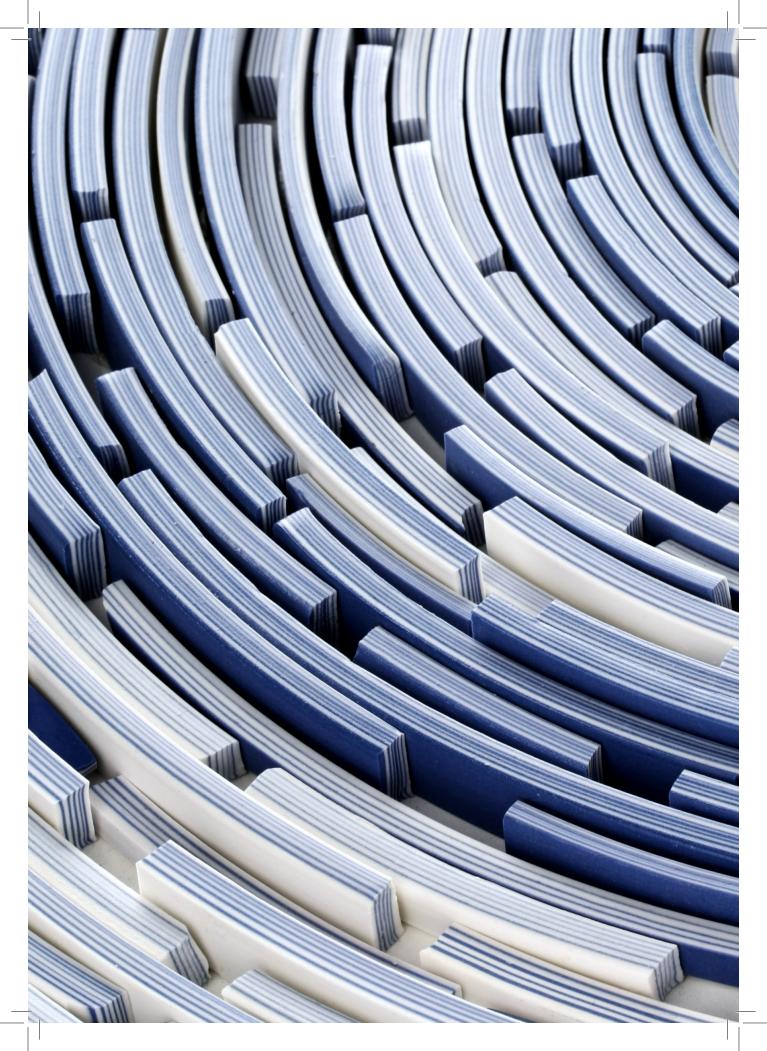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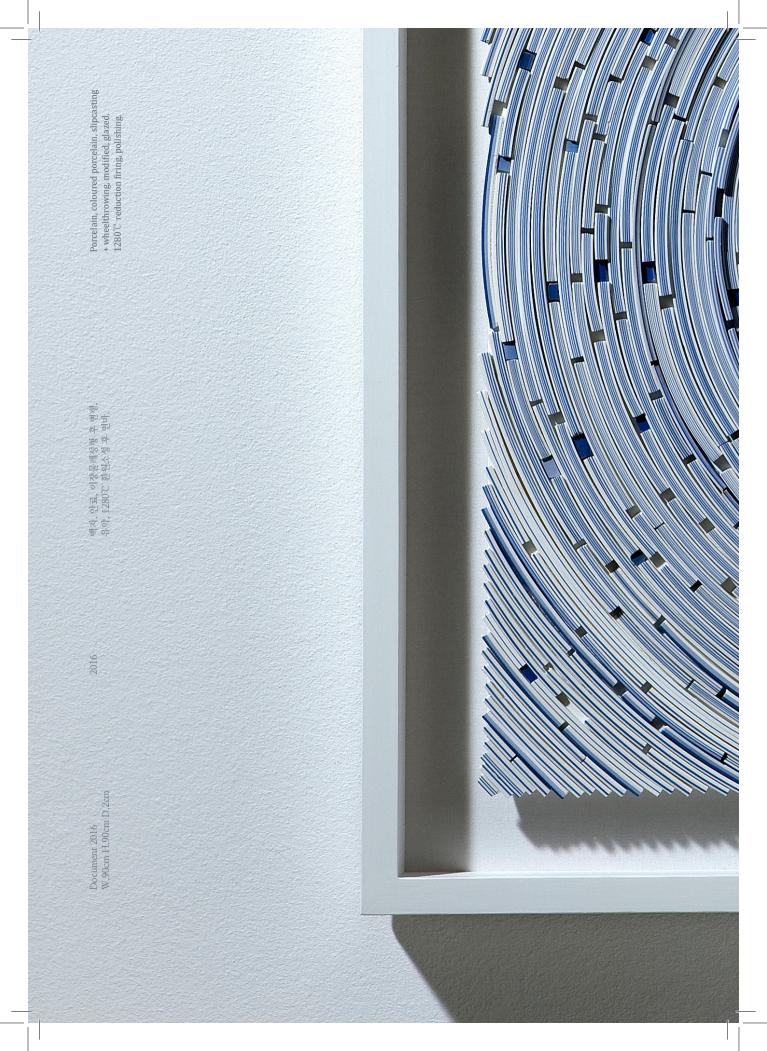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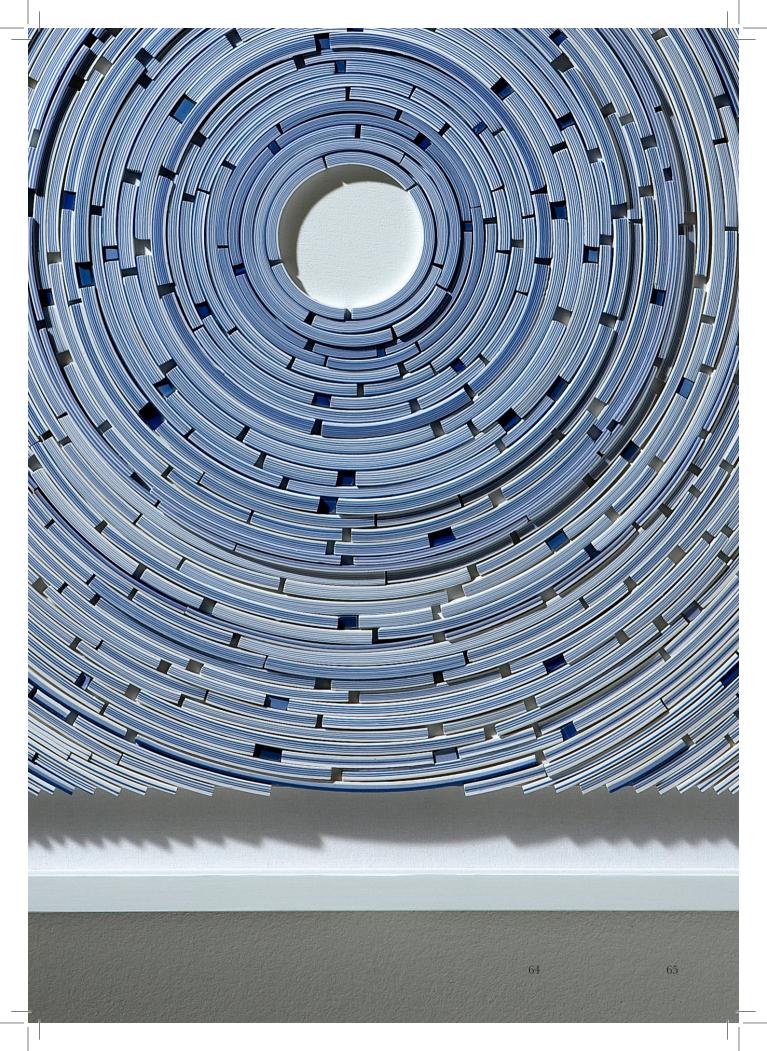




Document 2015 W.90cm H.90cm D.2cm











이민수		2010	LVS Craft, 2010 공예트렌드페어, COEX, 서울, 한국 LVS Craft, 2010 서울디자인페스타벌, COEX, 서울, 한국
1980	서울 출생		먼국 Talente 2010, 뮌헨, 독일 '퇴적', GalleryLVS, 서울, 한국
2008 2012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도자공예 학사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도자공예 석사	2009	56° PREMIO FAENZA (Faenza , Itary) 'Japan,Korea,China,Taiwan' New Century Contem-
2014-	양구백자연구소 선임연구원		porary Pottery Art Exhibition, Aichi, Japan
개인전		수상경력	I
2016	Cylinders, 갤러리 LVS, 서울, 한국	2015	동상,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청주, 한국 Winner Prize, ART AUREA AWARDS , ART AUREA, 베를 린, 독일
		2013	Winner Prize, COLLECT 2013, 사치갤러리, 런던, 영국
		2010	Talente Prize, Talente 2010, 뮌헨, 독일
주요단체전		2009	이탈리아 대통령상, 56° PREMIO FAENZA, 파엔자, 이탈리아 동상,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 생활도자관, 한국
2016	배자의 여름, 양구배자박물관, 양구, 한국 SOFA (Sculpture Objects Functional Art +Design), 시카고, 미국 황갑순과 그의 학생들, Galerie Handwerk, 뮌헨, 독일 아트제네바 2016, 제네바, 스위스 made人korea 한국공예전, 서울 DDP,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산 베스코	2008	은상, 'New Generation', 세계도자기엑스포, 여주, 한국
2015	'KOREA NOW'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파리 장식미술관 한국 공예전, 프랑스 국립장식미술관, 프랑스 생태띠엔 디자인 비엔날레 2015 미의 경험, 프랑스 COLLECT 2015, 사치 갤러리, 런던, 영국	작품소장	t .
	동아시아 공예와 디자인, 맨체스터 아트갤러리, 영국 한중일 아시아 현대도예전, 중국	2016 2015	중국 중앙미술학원 미술관, 베이징, 중국국 양구백자박물관, 양구, 한국
2014	수공예박람회2014, 함부르크 수공예박물관, 독일 조선백자 청화에 물들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COLLECT 2014, 사치 갤러리, 런던, 영국 백중백:세 번째 이야기, Gallery LVS, 서울, 한국 공예페스티벌, 온기溫技, 문화역서울 284, Gallery LVS, 서울, 한국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청주, 한국
		2014	함부르크 수공예 박물관, 함부르크, 독일
		2013	더럼 동양 박물관, 더럼, 영국 아모레퍼시픽 뮤지엄, 서울, 한국
2013	COLLECT 2013, 사치 갤러리, 런턴, 영국 REVELATIONS 〈Le salon des metiers D'ART et la creation〉 GRAND PALAIS, 파리, 프랑스 백중백, Durham University Oriental Museum, 더럼,영국 익숙함 그리고 새로움, 청주 국제 공예비엔날레 국제산업관, 한국 Eutektikum, Galerie Rosemari Jäger, 호츠하임, 독일 Korea Power - Design and Identity, 프랑크프루트 뮤지엄, 프랑크프루트, 독일 백중백, JF Chan Gallery, 로스앤젤러스, 미국	2012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 한국
		2011	리움미술관, 서울, 한국
		2010	MOA,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한국
		2008	한국도자진흥재단, 경기도 이천, 한국
2012	독일 퓨어스텐베르크 백자 박물관, 한국의 젊은 도에가들, 퓨어스텐베르크 백자 박물관, 독일 'Reality Equals Dream, Korean Contemporary Art & Craft Exhibition', ION Art Gallery, 싱가폴 START Craft-K in Seoul展 은근과 해학, 아라아트, 서울, 한국		
2011	Keil-Kellinghusen-Korea, Kap Sun Hwang und der kermische Wissenstransfer, 켈링후젠, 독일 Exempla 2011, Internationalen Handwerkmesse Munchen, 뮌헨, 독일 KIAF 2011, COEX, 한국 서울 'The Culture of Drinking', 갤러리 Handwerk , 뮌헨, 독일 1인식기전, LVS CRAFT, 한국		

## 'The Tablewares for Single-Person', LVS CRAFT, Seoul, Korea 1980 Born in Seoul 2010 TALENTE 2010, Munich, Germany LVS Craft, 2010 Craft Trend Fair, COEX, Seoul, Korea 2008 B.F.A., Departments of Crafts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LVS Craft, 2010 Seoul Design Festival, COEX, Seoul, Korea M.F.A., Faculty of Crafts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Deposition', GalleryLVS, Seoul, Korea 2012 56° PREMIO FAENZA, Faenza, Italy 2009 2014-Yanggu Porcelain Institute Reserch Manager 'Japan, Korea, China, Taiwan' New Generation Contemporary Pottery Art Exhibition, Aichi, Japan Solo Exhibition 2016 Cylinders, Gallery LVS, Seoul, Korea Awards 2015 Bronze prize,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competition, Cheongju, Korea Winner Prize, ART AUREA AWARDS, ART AUREA, Berlin, Selected Group Exhibitions Gemany 2013 Winner Prize, COLLECT 2013, Saatchi Gallery, London, UK Talente Prize, Talente 2010, Munich, Germany 2016 The Summer of Porcelain, Yanggu Porcelain Museum, Yanggu, 2010 Prize of the President of the Italian Republic, 56° PREMIO SOFA (Sculpture Objects Functional Art +Design), Chicago, USA FAENZA, Faenza, taly "Kap-Sun Hwang und seine Schüler", Galerie Handwerk, Munich, 2009 Bronze Prize, 'The 3rd Our Beautiful Ceramics Exhibition; Artgeneve 2016, Geneva, Swiss Korea, World Ceramic Biennale, Yeoju living ware gallery, made 从 korea, DDP Seoul, Gwangju Asia Culture Center, Busan 2008 Silver Prize, 'New Generation', World Ceramic Exposition "Korea Now", Musée l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Foundation, Yeoju, Korea Biennale Internationale Design Saint-Étienne 2015 The experiences of beauty. France COLLECT 2015 Saatchi Gallery, London, England Eastern Exchanges: East Asian Craft and Design, Manchester Art Gallery, Manchester, England Collections 'Korea, China, Japan, Taiwan' New Generation Contemporary Pottery Art Exhibition, China 2014 Messe Kunst und Handwerk 2014,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2016 The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Beijing, China Hamburg.Germany In Blue and White: Porcelains of the Joseon Dynasty, NATIONAL 2015 Yanggu Porcelain Museum, Yanggu, Korea MUSEUM OF KOREA, Korea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COLLECT 2014 Saatchi Gallery, London, England Beauty of Waiting, Korean Craft Museum, Gallery LVS, Seoul, 2014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Germany Crafts Festival, Warm Technology , Culture station 284, Gallery LES ARTS DECORATIFS, Paris, France LVS, Seoul, Korea 2013 Durham Orental Museum, Durham, England 2013 COLLECT 2013 Saatchi Gallery, London, England AMOREPACIFIC Museum, Seoul, Korea REVELATIONS <Le salon des metiers D'ART et la creation> GRAND PALAIS, Paris, France 2012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White on White, Durham University Oriental Museum, Durham, 2011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Korea Something old something new, Cheong-ju INT'L Craft Biennale International Pavilion, Korea 2010 Museum of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Eutektikum, Galerie Rosemari Jäger, Hochheim, Germany Korea Power - Design and Identity , Museum Angewandte Kunst, 2008 World Ceramic Exposition Foundation, Icheon, Gyeonggi-do, Korea Frankfurt am Main, Germany White in White, JF chen Gallery, Los Angels, USA 2012 Von Fürstenberg nach Asia. Junges Porzellan-Design aus Korea, Porzellanmanufaktur Fürstenberg GmbH, Museum im Schloss, Fürstenberg, Germany 'Reality Equals Dream, Korean Contemporary Art & Craft Exhibition', ION Art Gallery, Singapore START Craft-K in Seoul, Politeness and Humorous, ARA ART, Seoul, Korea 2011 Keil-Kellinghusen-Korea, Kap Sun Hwang und der kermische

Germany

KIAF 2011, COEX, Seoul, Korea

'The Culture of Drinking', Gallery Handwerk , Munich, Germany

Minson Lee

Wissenstransfer, Kellinghusen, Germany

Exempla 2011, Internationalen Handwerkmesse München, Munich,







표지사진 Cover

KC Studio

본문사진 Photography

KC Studio

p.6-7, p.12-13, p.15, p.18-19, p.22-29, p.32-37, p.42-45, p.61-65

김보경 **Bokyung Kim** p.2-3, p.10-11, p.20-21, p.30-31, p.39, p.46-47, p.52, p.58-59, p.66-67, p.70-72

이민수 **Minsoo Lee** <sub>p.40-41, p.48-51, p.54-57 p.60</sub>

**Bernd Perlbach** 

사진편집 Photo retouch

이민수 Minsoo Lee

글 Writing

이민수 Minsoo Lee 오다인 Dain Oh

번역 Translation

백경원 Kyungwon Baek

오다인 Dain Oh

이아름 Ahreum Lee

교정 Proofreading

백경원 Kyungwon Baek

편집과 디자인 Edit & Design 김보경 Bokyung Kim

인쇄 Printing

청산인쇄 Chungsan printing

전시 Exhibition

## LVS gallery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7길 33 쟈스미빌딩 B1 06032 B1, Jasmi Building, Dosan-daero 27gil 33, Gangnam-gu, Seoul 06032, South Korea

Tel. +82 (0)2 3443 7475 Fax. +82 (0)2 3443 7827 Email. info@gallerylvs.org

작가연락처 Contact

이민수 yeeha11@naver.com